

# 形態素構造制約과 形態論的 構成

—‘ㅍ개(屏)’를 예로—

유 필 재

1. 머리 말
2. 中世國語의 形態素構造制約 一例
3. 派生接尾辭 ‘-개, -애’의 形態音素論
4. 意味論的 透明性
5. 맺 음 말

## 1. 머리 말

언어는 제약을 그 본질적인 속성의 하나로 가진다. 개별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제약 중에서 배열에 관한 것은 연구자가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제약의 한 가지이다. 예를 들어 국어의 형태소 배열에는 엄격한 제약이 존재하며 그것을 어겼을 때는 정상적인 국어의 발화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된다(\*가겠시습시다). 이른바 ‘음소배열론(phonotactics)’으로 알려진 음운론의 한 하위분야는 다름 아닌 음소의 배열에 대한 제약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국어는 두 개의 자음이 연속하고 후행 자음이 ‘ㄹ’일 경우에 선행 자음은 반드시 ‘ㄹ’이어야 한다는 음 배열상의 특징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음 배열상의 제약이 음소층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형태소를 이루는 음 배열에도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러한 주장은 ‘형태소구조제약(morpheme structure constraints)’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sup>(1)</sup>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 선행 모음이 ‘au’이면 후행 자음은 반드시 [+coronal] 인 자음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1) 생성음운론 내에서 형태소구조제약에 대한 연구사는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inguistics vol.3* (1992:3f)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형태소구조제약은 앞서 언급한 음소배열제약과 겹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있다. 두 개의 자음이 연속될 때 후행 자음이 비음이면 선행 자음도 반드시 비음이어야 한다는 제약은 국어에서 음소배열제약일 뿐만 아니라 형태소구조제약도 되는 것이다(\*박망이). 반면에 앞서 제시한 영어의 ‘au-[+coronal]’이라는 형태소구조제약은 형태소 내부에만 적용되고 형태소 경계를 넘어서면 적용되지 않게 된다(endowment, cowboy 등). 영어의 예의 경우는 형태소구조제약이 음소배열제약과 중복되지 않는 예라고 말할 수 있다.<sup>(2)</sup>

이 영어의 예의 경우는 음소배열제약과 겹치지 않는 형태소구조제약은 형태소 내부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본고는 이러한 형태소구조제약의 특징에 착안하여 중세국어에 존재하는 한 형태소구조제약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형태소구조제약의 설정에는 형태론적인 구성의 확인이 함께 맞물려 있다.

## 2. 中世國語의 形態素構造制約 一例

### 1. 중세국어에서 ‘脣音-ㄹ’ 음연쇄의 분포

중세국어에서 형태소 내부에서는 이른바 脣音 다음에 모음 ‘ㄹ’이 올 때 이에 후행할 수 있는 자음이 대단히 제약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를 후행 자음이 ‘ㄹ’이 있는 음절의 종성으로 쓰인 경우와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쓰인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의 가로줄은 ‘脣音-ㄹ-子音’에서 脣音의 종류를 나타내고 세로줄은 자음의 종류를 나타낸다. 위의 표에서 ‘ㄹ’에 후행할 수 있는 자음으로 ‘ㄴ, ㄷ, ㄹ, ㅅ, ㅈ, ㅊ’ 등의 자음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음들은 訓民正音 체계 내에서 ‘舌音’ 및 ‘齒音’으로 분류된 것들이다. 반면에 ‘牙音’과 ‘脣音’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ㄹ’ 다음에 반모음 ‘ㄱ’이

(2) 영어의 예는 R. L. Trask(1996:227)에서 가져왔다. 그런데 R. L. Trask(1996:227)에서는 본고와는 달리 음소배열제약과 겹치지 않는 경우만을 형태소구조제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1) ‘으’가 있는 음절의 종성으로 쓰인 경우

	ㅁ	ㅂ	ㅅ	ㅍ
ㄴ	문돌다			
ㄷ	문			
ㄹ	물	볼	셀다	플다
ㄹC	물다, 물병다	복다, 볼병다		
ㅅ	못	벗		
ㅅC				פות
ㅈ	못다			

(2)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쓰인 경우

	ㅁ	ㅂ	ㅍ
ㄴ	ㅁ니다		
ㄷ	ㅁ더		
ㄹ	ㅁ려다	ㅂ롬	ㅍ려다
ㅅ	ㅁ슴	ㅂ슴다	
ㅈ	ㅁ즈		
ㅊ	ㅁ춤내		

을 경우에는 그 외의 자음들도 자유롭게 후행할 수 있다(뭉, 뭉다, 뭉글다, 뭉성 등). 따라서 이러한 자음의 분포 제약은 ‘ㄹ음-으-子音’인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sup>(3)</sup>

중세국어에서 이러한 분포상의 제약을 기술하고자 할 때 『訓蒙字會』에 나타나는 ‘ㅍ개 <ㅁ 12b>’는 유일한 예외가 된다.<sup>(4)</sup> 위에서 살펴본 자료

(3) 이러한 분포상의 제약은 이미 李崇寧(1939)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李崇寧(1939)에서는 이것을 남부방언에서 나타나는 원순모음화(ㅍ>ㅍ 등)의 환경으로 이해하였으며, 형태소를 이루는 음 배열의 특징이라는 인식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는 李丞宰(1977)도 마찬가지이다.

(4) 18세기말 자료인 『物譜』에 ‘ㅍ이’와 같은 어형이 보인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으’의 비음운화가 거의 완성된 시기의 자료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국어 사전에서는 ‘閉氣, 肺氣’라는 한자어로 등재되어 있다.

들이 보여주는 분포상의 편중이 하나의 제약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푼개’와 같은 예에서 왜 ‘脣音-ㄹ’ 다음에 ‘ㄱ’이 왔는지의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소배열규칙의 반영이 아닌 형태소구조제약의 경우는 그 적용 범위가 형태소 내부로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푼개’에서 ‘푼’ 와 ‘개’ 사이에 형태소 경계가 존재한다면 ‘푼개’는 위의 ‘脣音-ㄹ-子音’의 예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의 자음들의 편중은 제약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된다.

## 2. ‘푼개(脣)’의 의미

중세국어에서 ‘푼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예들이 보인다.

### (3) ① ‘舟船’ 항목에서

脣 푼개 호 俗呼脣斗 <訓蒙字會(叡山本), 中12>

② 脣 杼水器 今俗呼船中所用曰一斗 푼개 <四聲通解, 上41>

### ③ ‘舟舡’ 항목에서

脣斗 파래

潑水 비에 이슬 프다 潑一作脣 <譯語類解, 下22>

④ 脣船 비에 이슬 프다 <譯語類解補 46>

『訓蒙字會』와 『譯語類解』에서 모두 ‘배[舟船, 舟舡]’에 관한 항목에 ‘푼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푼개’가 배와 관련된 어떤 것임을 알 수 있다. 『四聲通解』에서의 ‘杼水器’ 즉 ‘물을 떠내는 기구’라는 설명에서 ‘푼개’의 의미를 대략 알 수 있다. 『譯語類解補』에 나타나는 예는 ‘푼개’의 실체를 가장 명확히 알려준다. ‘비에 이슬 프다’에서 ‘이슬’이란 ‘배에 스며든 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푼개’란 ‘배에 스며든 물을 퍼 내는 어떤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게 한다.<sup>(5)</sup>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세국어에 도구를 나타내는 접미사 ‘-개/계’가 있다. 중세국어에서 ‘집계’는 ‘무언가를 집는 도구’를 의

(5) 위의 예에서 ‘脣’와 ‘脣斗’가 나타난다. 諸橋徹次(1986)에 의하면 이 둘은 의미에서 차이가 난다. ‘脣’가 명사로 쓰일 경우 배에 스며든 물을 퍼내는 도구만을 가리킴에 반하여 ‘脣斗’는 명사로 쓰일 경우 배에 스며든 물을 퍼내는 도구를 가리키는 경우와 눈에 물을 대는 기구를 가리키는 경우, 두 가지로 쓰이고 있다. 즉 ‘脣斗’가 ‘脣’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꽂개’의 ‘-개’도 ‘집개’의 ‘-게’와 동일한 접미사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sup>(6)</sup>

한편 현대국어 사전에도 이 ‘꽂개’의 후대형인 ‘파개’가 실려 있다. 신기철·신용철 編(1989)에 의하면 ‘파개’는 ‘배에서 물을 떠 내는 데 쓰는 손두레박’으로 설명되어 있다. 같은 뜻으로 ‘파래박’이 쓰인다고 한다. 한편 ‘파래’는 ‘파래박’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파래’는 ‘용두레’와 같은 뜻이며 ‘용두레’는 흔히 알고 있듯이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의 논으로 퍼 올리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인 것이다. 같은 뜻으로 ‘호두(戽斗), 품개, 풍개’ 등의 단어가 있다.<sup>(7)</sup> 신기철·신용철 編(1989)의 설명을 정리하면 현대국어에서는 배에서 쓰이는 것은 ‘파개, 파래박’으로, 논에서 쓰이는 것은 ‘용두레, 파래, 품개, 풍개’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전자의 경우는 漁具이고 후자의 경우는 農器具이기 때문에 현대국어에서도 도구를 나타내는 ‘-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중세국어의 ‘꽂개’와 그 후대형인 ‘파개’가 모두 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의미에 있어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는 도구를 나타내는 접미사 ‘-개’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구나 중세국어에서 ‘꽂-’ 동사가 존재하고 있다.

(4) 곧 꽂고 불 꿩우니 <月印千江之曲 60>

이러한 사실들은 중세국어 당시 공시적으로 ‘꽂개’를 ‘꽂-+-개’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꽂개’를 이와 같이 파생어로 분석하게 되면 앞에서 제시한 ‘脣音-ㄹ- 자음’에서의 분포상의 편중은 다음과 같은 중세

(6) 중세국어에서 ‘-개’와 ‘-게’는 모음조화에 따라 교체하는 이형태이다(받개-집개).

(7) 이 단어들은 대부분 동일 대상에 대한 방언형이 아닌가 한다. 김광언(1969: 119)에 의하면 ‘용두레’는 충남 서산에서 확인되었고, 전남 영광에서는 ‘통두레’라는 이름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8) ‘꽂개’와 ‘파래’의 관계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띤다. 『訓蒙字會』에서 ‘戽’의釋은 ‘꽂개’이지만 18세기말의 『倭語類解』에 이르면 ‘꽂개’가 ‘戽’의釋으로 쓰인다. 현대국어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논에서 쓰이는 것을 ‘파래’라 하고 배에서 쓰이는 것은 ‘파래박’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어의 형태소구조제약의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

(5) C → [-grave] / 脣音 - ㅇ - C

중세국어에서 형태소 내부의 ‘脣音 - ㅇ’ 음 연쇄에 후행하는 자음은 반드시 [-grave]자질을 가진 것이 아니면 안된다.

이상의 제약은 고유어뿐만 아니라 한자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적어도 중세국어의 대표적인 한자음 자료인 『千字文』, 『訓蒙字會』, 『新增類合』이 보여주는 자료의 양상은 그러하다. 다음은 위의 세 문헌에서 ‘脣音 - ㅇ’로 시작되는 한자음의 총 목록이다. 어느 것도 위의 제약을 어기는 예는 보여주지 않는다.<sup>(9)</sup>

- (6) 『千字文』   미, 밍, 비, 빅, 평  
 『訓蒙字會』   미, 빅, 밍, 비, 빅  
 『新增類合』   미, 빅, 밍, 비, 빅, 평

### 3. 派生接尾辭 ‘-개, -애’의 形態音素論

이상의 추론은 ‘꼭개’의 의미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의미론적인 증거가 아닌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논의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접미사 ‘-개/게’의 형태음소론적 양상에서 찾으려 한다. 다시 말해서 ‘꼭개’의 ‘-개’가 보여주는 음운론적 양상이 다른 ‘-개/게’ 접미사 파생의 예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 둘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1. 音素 次元의 變動

중세국어에서 주로 도구를 나타내는 접미사 ‘-개’는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개/게/애/에’의 네 가지 형태를 가진다. 우선 어기가 되는 동사의

(9) 이와 같은 형태소구조제약은 물론 중세국어의 공시론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현대국어의 방언 중에 제주 방언은 중세국어의 ‘ㅇ’를 현재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 제주 방언에서는 위와 같은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뭍(馬尾藻), 뭍글다(作), 복기 등).

어간 모음이 양성이면 ‘-개’가, 음성이면 ‘-게’가 선택된다(받개 / 돕게). 그리고 이 이형태들은 동사의 어간말 자음이 ‘△, ㄹ’면 ‘ㄱ’이 탈락되어 ‘-애/에’로 나타난다(조애 / 뜰에질).

‘꼭개’가 파생어라면 여기는 ‘꼭-’가 되는데 이상의 ‘-개’의 이형태의 양상을 살펴보면 ‘ㄱ’이 탈락되지 않은 양성모음형 ‘-개’가 선택되어야 한다. 실제의 자료도 그러하기 때문에 음소 차원의 변동으로서는 문제가 없다.

## 2. 韻素 次元의 變動

음소 차원의 변동 양상은 비교적 단순하였지만 운소 차원의 그것은 좀더 복잡하다. 중세국어의 운소로서는 聲調가 가장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성조의 변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파생접미사 ‘-개/게’의 성조 변동 양상을 정리해 보는데, 앞서와는 달리 파생접미사 ‘-애/에’의 자료도 함께 다루기로 한다. 이 접미사들도 어떤 경우에는 도구를 나타내는 파생어를 만들 뿐만 아니라<sup>(10)</sup> 성조 변동 양상도 ‘-개/게’의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조 변동의 양상만을 살핀다면 둘을 함께 다루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개/게’의 성조 변동 양상을 살펴보면 어기가 되는 동사의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그리고 ‘ㄹ’로 끝나는 경우로 나누고 ‘-애/에’의 변동 양상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살펴본다.

### 2.1 파생접미사 ‘-개/게’의 성조 변동

#### 2.1.1 자음 어간

##### A. 평성 어간

조애(LH) <杜詩諺解-初 10:33> : 조-(L)<sup>(11)</sup>

집게(LH) <訓蒙字會, 中16> : 집-(L)

돕게(L?)<sup>(12)</sup> <杜詩諺解-初 19:46> : 돕-(L)

##### B. 거성 어간

에 없음

(10) 허 응(1975:233) 참조.

(11) ‘L, H, R’은 각각 平聲, 去聲 그리고 上聲을 나타낸다.

(12) ‘돕게’의 ‘게’의 성조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른 예들로 보아 거성일 것으로 생각된다.

받개(LH) <訓蒙字會, 中8> : 받-(L)

촉접개(LLH) <訓蒙字會, 初7> : ?

### 2.1.2 모음 어간<sup>(13)</sup>

A. 평성 어간

B. 거성 어간

에 없음

?푼개(HH, HL) <訓蒙字會, 中12> : 꺾-(H)

### 2.1.3 ㄹ 어간

놀개(HH) <月印釋譜 1:14> : 놀-(L)

(HL) <杜詩諺解 21:17>

놀애(HL) <月印釋譜 10:78>

뜰애질(LLH)<sup>(14)</sup> <三綱行實圖, 孝7> : 뜰-(H)

위의 예들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관찰된다. 우선 접미사 ‘-개/게’의 기본 성조는 거성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성 자음어간의 예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접미사 ‘-개/게’는 선행하는 어기의 성조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못한다. 어기의 성조가 거성일 경우 ‘-개/게’는 평성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른바 어말의 평성화로 볼 수 있다.<sup>(15)</sup> 자료가 풍부하지

(13) 중세국어의 ‘베-(R)’와 ‘벼개’를 들어 모음 어간 항목에 어간 성조가 상성인 경우를 들 수도 있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 ‘\*베개’는 문증되지 않을뿐더러 반대로 ‘\*벼-’가 활용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없다. 더구나 ‘벼개’의 성조는 ‘HH’ <法華經諺解 2:73>이거나 ‘HL’ <杜詩諺解-初 22:40>로 나타나 ‘베-’와 성조상으로도 불일치를 보인다. 따라서 ‘벼개’는 宋詰儀(1992:35)에서 제안한 것처럼 음운론적으로 어휘화한 예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사 어간 ‘\*벼-’는 역사적으로 사라졌지만 그것의 파생어 ‘벼개’ 속에 화석처럼 살아남아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14) 志部昭平(1990:41)에서는 ‘뜰-’의 어간 성조가 거성인 사실에 근거하여 『三綱行實圖』의 諸異本에서 ‘뜰애질’이 ‘LLH’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金泳仲所藏本’에 나타나는 성조형을 따라 ‘HLH’로 복원한 바 있다. 그런데 어간말음이 ㄹ인 동사에 파생접미사 ‘-게, -애’가 붙을 경우는 다른 자음어간이나 모음어간인 경우와는 그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동사 어간 성조에 근거하여 ‘뜰애질’의 성조를 복원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15) 金完鎭(1977) 참조. 다만 어기의 성조가 평성일 때에는 이러한 어말평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세국어 성조에서 하나의 어절 내부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거성은 음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어기의 성조가 거성일 경우에는 그것이 최초의 거성이기 때문에 후행하는 거성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지만 어기의 성조가 평성일 때는 후행하는 접미사의 거성이 최초의 거성이기 때문에 평성화하면 안 되는 것이다. 門脇誠一(1976), 兪弼在(1997) 참조.



못하여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어간말음이 ‘ㄹ’인 경우는 다른 예들과는 그 양상이 다른 듯하다.

모음 어간의 예는 ‘ㅍ개’ 밖에 없다. 다른 예들의 성조 변동과 ‘ㅍ개’의 그것을 비교하여 동일한 패턴의 음운론적 양상을 확인하려던 것이 자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ㅍ개’ 자신이 그 예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는 일견 순환론적 논리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우리는 접미사 ‘-개/게’가 기본적으로는 어기의 성조를 바꾸지 않고 또 ‘ㅍ개’의 경우도 그러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 2.2 파생접미사 ‘-애/에’의 성조 변동

### 2.2.1 자음 어간

#### A. 평성 어간

부채(LH) <杜詩諺解-初 24:17> : ㅈ-(L)

글개(LH) <訓蒙字會, 中18> : ㄱ-(L)

실애(LH) <杜詩諺解-초, 7:6> <sup>(17)</sup> : 실-(R)/실-(L)

귀마개 <新增類合, 上31> : ㅁ-(L)

#### B. 거성 어간<sup>(16)</sup>

예 없음

### 2.2.2 모음 어간

예 없음

### 2.2.3 ㄹ 어간

울애(HH) <訓蒙字會, 上1> : 울○-(L) / 우르-(LL) (咆)

접미사 ‘-애/에’도 어기의 성조를 바꾸지 않는다. 이 점에서 앞서의 접

(16) 두 접미사의 예 모두 자음 어간일 경우는 거성 어간이, 모음 어간일 경우는 평성 어간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자료상의 제약 때문만이 아니다. 중세국어에서 일음절 무성자음 어간은 대체로 평성이며 유성자음 어간은 대체로 상성이다. 모음 어간은 거성인 것과 후행하는 어미의 종류에 따라 평성과 거성이 교체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어간의 분절음 구조와 성조와의 상관 관계는 鄭然燾(1976=1963), R. Ramsey(1991)에 잘 지적되어 있다.

(17) 『杜詩諺解-초, 7:6』에 보이는 ‘실애’는 ‘시렁(架)’과의 어휘적 관계 때문에 ‘실-(載)+-애’로 분석된 바 있다(李賢熙·李浩權·李鍾默·姜哲中(1997: 58) 참조). 그리고 중세국어에서 ‘실-’은 이른바 유동적 상성으로 자음어미 앞에서는 ‘실-(R)’으로 모음어미와 매개모음어미 앞에서는 ‘실-(L)’로 나타난다. ‘실애’의 성조가 ‘LH’로 나타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미사 ‘-개/계’와 성조의 변동면에서 일치한다.<sup>(18)</sup> 어간 발음이 ‘ㄹ’인 경우에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점도 그러하다.

다소 장황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파생접미사 ‘-개/계’, ‘-애/애’는 어기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몇 가지 이형태를 가진다. 이 접미사의 기본 성조는 거성이며 파생 과정에서 어기의 성조를 바꾸지 않는다. ‘꼭개’의 ‘-개’는 이상의 파생접미사 ‘-개/계’의 변동 양상과 어긋나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파생접미사 ‘-개/계’일 가능성이 높다.

#### 4. 意味論的 透明性

일반적으로 생산적인 접사에 의한 파생일 경우 어기와 해당 파생어 사이에는 의미론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툭-’이란 어기의 ‘蓋’라는 의미는 그 파생어인 ‘듬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꼭개’가 ‘꼭-’를 어기로 한 파생어라고 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면 ‘꼭-’의 의미와 ‘꼭개’의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어기 ‘꼭-’의 의미를 살펴보면 후기중세국어에서 ‘꼭-’는 대략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7) ① 鑿

方便門 여르샤문 우물 폴 곧고(開方便門 猶鑿井也) <法華經諺解 4:95>

禹의 꼭산 서늘흐 마르미 正히 便宜히 흐르돏다(禹鑿寒江 正穩流)

<杜詩諺解-初 8:41>

어르물 과 河伯의 宮을 侵逼흐가(鑿冰恐侵 河伯宮)

<杜詩諺解-初 16:60>

##### ② 掘

塵을 侵勞티 아니호믄 짜 폴 犯티 아니호미오(不侵於塵 不犯掘地)

<禪宗永歌集諺解 下77>

(18) 이 점에서 허 웅(1975:235f)에서 ‘-애/에’ 파생의 예로 든 ‘돌애, 돌애’는 ‘-애/에’에 의한 파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돌애, 돌애’의 성조는 모두 ‘LL’인데(사전들에는 LR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주격형이다. 황선엽(1998) 참조) ‘-애/에’의 기본 성조는 거성인 것이다.

③ 穿

各別히 平原에 ㅅ가출 ㅍ ㅅ리고(別於平原 穿去地皮)

<楞嚴經諺解 7:9>

위의 예에서 ‘ㅍ-’로 번역된 한문의 원래 자는 ‘鑿, 掘, 穿’이며 이들 동사들의 목적어는 ‘땅, 흙’ 등이다. 한문 원문에서는 ‘井, 江’ 등이 목적어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의미상으로는 ‘江, 井’을 만들기 위해 흙을 파 낸다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중세국어에서 ‘ㅍ-’의 목적어로 ‘물’이 쓰인 예는 찾기 어렵다.<sup>(19)</sup> ‘ㅍ개’는 ‘杼水器’인바 ‘ㅍ-’도 ‘杼, 汲’ 등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발견되면 양자의 의미론적 투명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보되는 것이지만 실제 자료가 보여주는 양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ㅍ-’와 ‘ㅍ개’ 사이에 완전한 의미론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음과 같은 사실만을 지적하여 둔다. 후기중세국어 당시에는 ‘汲’을 의미하는 ‘ㅍ-’의 예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ㅍ-’는 17세기 근대국어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 예가 보이기 시작한다.

(8) 소라의 물을 두세 박이나 ㅍ 쥬어 ㅅ혀 두었다가 <閨閣叢書 2>

이러한 사실에서 후기 중세국어 당시 동사 ‘ㅍ-’가 문증된 예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 볼 따름이다. 혹은 ‘ㅍ개’를 배 안에서 사용하는 동작이, 무언가를 ‘ㅍ-’는 동작과 유사하였는지도 모르겠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추론은 삼가기로 한다.

## 5.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ㅍ개(HH, HL)’는 ‘ㅍ-+-개’로 분석되는 파생어이다. ‘ㅍ개’의 의미(屨)가 도구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의 형태음

(19) ‘노픈 두들게 물 포몬(高原鑿水) <法華經諺解 4:93>’의 예가 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부분은 ‘물을 찾아서(흙을) 파는 것은’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으로 ‘鑿’의 목적어로 ‘물’이 선택된 예는 아니다.

소론적 변동 양상이 일반적인 파생접미사 ‘-개’의 그것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세국어에서 ‘脣音-ㄹ-[C:-grave]’라는 형태소구조제약이 성립한다. 이것은 고유어와 한자어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세국어의 ‘脣音-ㄹ’ 음 연쇄를 가졌던 것들이 전남 방언 일부와 전라도와 인접한 일부 경상 방언에서 ‘脣音-오’의 반사형을 가진다. 이러한 대응 관계 때문에 일찍부터 중세국어의 이러한 음 연쇄에 대한 주목은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그것을 형태소구조제약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중세국어의 형태소구조제약 하나를 확인하고 ‘-개’ 파생어 목록에 ‘ㅍ개’를 추가한 것이 본고의 의의라고 하겠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 구본관(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太學社.
- 김광언(1969) “한국의 농기구”, 민속자료조사보고서 제20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 金星奎(1995) “‘사르다’류의 파생어”, 韓日語學論叢, 國學資料院.
- 金完鎭(1977) 中世國語聲調의 研究, 塔出版社.
- 宋喆儀(1992) 國語의 派生語形成 研究, 太學社.
- 신기철·신용철 編(1989)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 俞弼在(1997) “華藏寺板『父母恩重經諺解』에 대하여”, 震檀學報 84.
- 李基文(1972) 國語史概說(改訂版), 塔出版社.
- 李崇寧(1939) “朝鮮語 異化作用에 對하여”, 震檀學報 11. (李崇寧國語學選集 1(1988) 民音社 에 재수록.)
- 李丞宰(1977) “南部方言의 圓脣母音化와 母音體系”, 冠岳語文研究 2(서울대).
- 李賢熙·李浩權·李鍾默·姜哲中(1997) 杜詩와 杜詩諺解 7, 신구문화사.
- 鄭然燾(1976=1963) “15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의 聲調에 對하여”, 國語聲

調에 관한 研究, 一潮閣.

濟州語辭典(1995) 濟州大學校 博物館(濟州方言研究會).

황선엽(1998) “중세국어 ‘슬잡다’에 대한 고찰”, 韓國文化 21(서울대).

허 옹(1975) 우리옛말본, 샘 문화사.

門脇誠一(1976) “中期朝鮮語における聲調交替について”, 朝鮮學報 81.

志部昭平(1990) 諺解三綱行實圖研究, 高麗書林.

諸橋徹次(1986) 大漢和辭典(修訂版), 大修館書店.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inguistics*(1992) Oxford University Press.

Kenstowicz, M. and C. Kisseberth(1977) *Topics in Phonological Theory*, Academic Press.

Ramsey, R.(1991) “Proto-Korean and the Origin of Korean Accent”, *Studies in the Historical Phonology of Asian Languag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Stanley, R.(1967) “Redundancy rules in phonology”, *Language* 43. No.2.

Trask, R. L.(1996) *A Dictionary of Phonetics and Phonology*, Routledge.

